

예술에 담은 코로나19 극복 의지 눈길

지난 6월 창립한 전북 예술인 그룹 AX가 두 번째 전시를 갖는다.

오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전주 서학동사진관에서 '코로나-사막-AX'를 주제로 7명의 작가가 참여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코로나가 몰고 온 황폐한 상황을 사막으로 규정하고,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지는 의지를 담아 작품을 제작했다. 인내하며 버틸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 마스크를 쓰고 보이지 않는 세균에 방역적 자세를 지키며 지내야 하는 상황은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살지 않으면 안 되고, 힘들어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한봉림은 '영원한 운동'이라는 입체 조형물과 벽에 거는 마스크를 출품한다. 마스크는 휴딩이를 내던져 일그러진 것에 눈 코 입을 표시해 만든 즉흥적 도조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지연은 2000년도에 찍은 '전주천'을 선보인다. 20여 년의 간격과 회고 를 느낄 수 있다.

이재승은 '명상'을 주제로 동심원적 구조의 추상 공간을 표현해 왔다. 먹과 한지가 정교하게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 점층적으로 깊어지는 평면 속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김춘선은 구겨진 종이와 낙서 등을 붙이고 그 위에 붓질과 드로잉을 가한다. 작품에는 논산-전주 간 승차권도 붙어 있고 톰 앤 톰스 커피 마크도 붙어 있다. 그는 스스로의 작업을 '가비지(쓰레기) 페인팅'이라고 부른다.

조현은 사람의 얼굴과 개의 얼굴을 같은 존재감으로 그리기도 해 흥미를 끌었는데, 이번 작품 '각각의 시간'은 활발한 필치로 두상의 윤곽을 암시



김지연 작 '전주천'



이재승 작 'Imagery Meditation' (위)과 김춘선 드로잉

'코로나-사막-AX' 전 25일부터 전주 서학동사진관 전북 예술인그룹 AX, 답답한 상황 변화 열망 담아

하고 그 위에 흰색의 붓질 흔적을 내려지듯 남겨 놓았다. 막막하고 성난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김성민은 예의 활발한 필치로 금산사 미륵전을 그린 유화를 출품한다. 그는 시원스럽게 펼쳐진 것

별 그림을 그려 주목받았다. 우연히 결눈으로 바라 본 듯한 시선으로 미륵전을 다룬 그의 유화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감을 담고 있다.

장석원의 'I LOVE YOU!'는 'I LOVE YOU,

I HATE YOU!' 시리즈의 연장선 상에 있는 작품이며 노란색 바탕에 모자를 쓴 남자의 얼굴이 나타난다. 작가는 사랑과 미움의 감정적 드라마를 자제 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드러낸다.

AX 작가들은 "우리의 활동이 깨어 있어 사회를 밝고 의미 있게 변화시키기를 바란다. 예술적 창의 성으로 답답한 코로나 19의 막힌 상황을 뚫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드라마서 등장한 클래식 즐겨요

21일 광주아트홀 '클래식! 드라마와 놀다' 공연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은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광주아트홀에서 '클래식! 드라마와 놀다' 앙콜 공연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은 '클래식! 드라마와 놀다'는 드라마에 나왔던 클래식 명곡들을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및 해설을 더해 연주하는 공연으로,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명곡들을 즐길 수 있다.

첫 번째 순서로 피아니스트 이유정이 드라마 '밀회' 중 '바흐 -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 중 전주곡'을 선보인다. 이어 피아니스트 장희경과 함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D.940 1악장'도 연주 한다. 테너 이원용은 '왕의 된 남자' OST인 세레

나데를, 소프라노 박미애는 '베토벤 바이어스'에 등장하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술계 하소서'를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 나오는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는 바리톤 권용만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마지막 곡으로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 OST인 '보고싶다'와 드라마 '대장금' OST인 '오나라'를 출연자 전체가 등장해 선보 일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은 광주아트홀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광주아트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wangjuarthall/live/>)을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문화재단, 내일부터 정율성 음악회

관현악·성악 등 유튜브 생중계

광주문화재단은 '2020 정율성음악축제 정율성 음악회'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밤 8시) 유튜브 '광주문화재단 TV'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는 변옥 지휘자가 예술감독을 맡아 정율성 선생의 발자취 및 음악을 조형함과 동시에 일반 대중들도 쉽게 클래식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도록 진행 예정이다.

첫날인 20일에는 지역음악인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정율성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피아니스트 박재연과의 협연 무대도 진행된다.

21일에는 지역의 실력 있는 실내악단이 정율성 음악 및 각 연주단체의 대표 레퍼토리를 선보

인다. 목관악기의 다양한 색채를 구현하는 마데라목 관악상블을 시작으로 피아노 앙상블 중심의 레퍼 토리를 선보이는 무지크바운다앙상블이 무대를 장식한다. 고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연구하는 모테 트앙상블과 지역의 클래식 저변확산을 위해 창단 된 광현악사중주단 등도 참여, 관객들에게 각각의 화음과 개성을 담은 다채로운 음률을 들려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역대 광주성악콩쿠르 입상자들인 테너 이정원과 허만택, 바리톤 강형구, 김기훈, 베이스 전승현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스페셜 게스트 인 소프라노 카트리나 크롬파네와 배예령도 참여, 2020정율성음악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금주 개봉 영화



뛰어난 연구 실적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성격 때문에 연구실에서 쫓겨 난 과학자 '마리'는 새로운 원소 라듐을 발견하는데 성공하며 '피에르'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하나, 발견 이면의 예상치 못한 힘을 알게 된다. 마르잔 사트라피 감독. 로자먼드 파이크, 샘 라일리, 안야 테일러 조이 주연. 상영시간 110분. 18일 개봉.

이민자 가족 중 막내 안티고네의 두 오빠 중 하나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구속된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안티고네는 감옥에 들어가고, 용기 있는 그의 행동에 대중들은 그를 SNS 영웅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소피 데라스페 감독. 나에마 리치, 라와드 엘 제인, 앙투안느 데로쉬에 주연. 상영시간 109분. 19일 개봉.

유명 잡지 '엘르' 편집장으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즐기던 장도미니크 보비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운명이 바뀌고 신체 중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즐리안 슈나벨 감독. 마티유 아말릭, 엠마 누엘 자이그너, 마리 조지 크로스 주연. 상영시간 111분. 19일 개봉.

태어날 때부터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외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살며 일상을 보내는 '클로이'는 어느 날 식탁에 놓인 장바구니에서 하나의 물건을 발견한 이후 믿었던 모든 일상에 의문을 품는다. 아니쉬 차간디 주연. 사라 폴슨, 키에라 앨런 주연. 상영시간 89분. 20일 개봉. /오지현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6445-937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5431-4006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666-5888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 T. 061-743-4200 / F. 743-4202